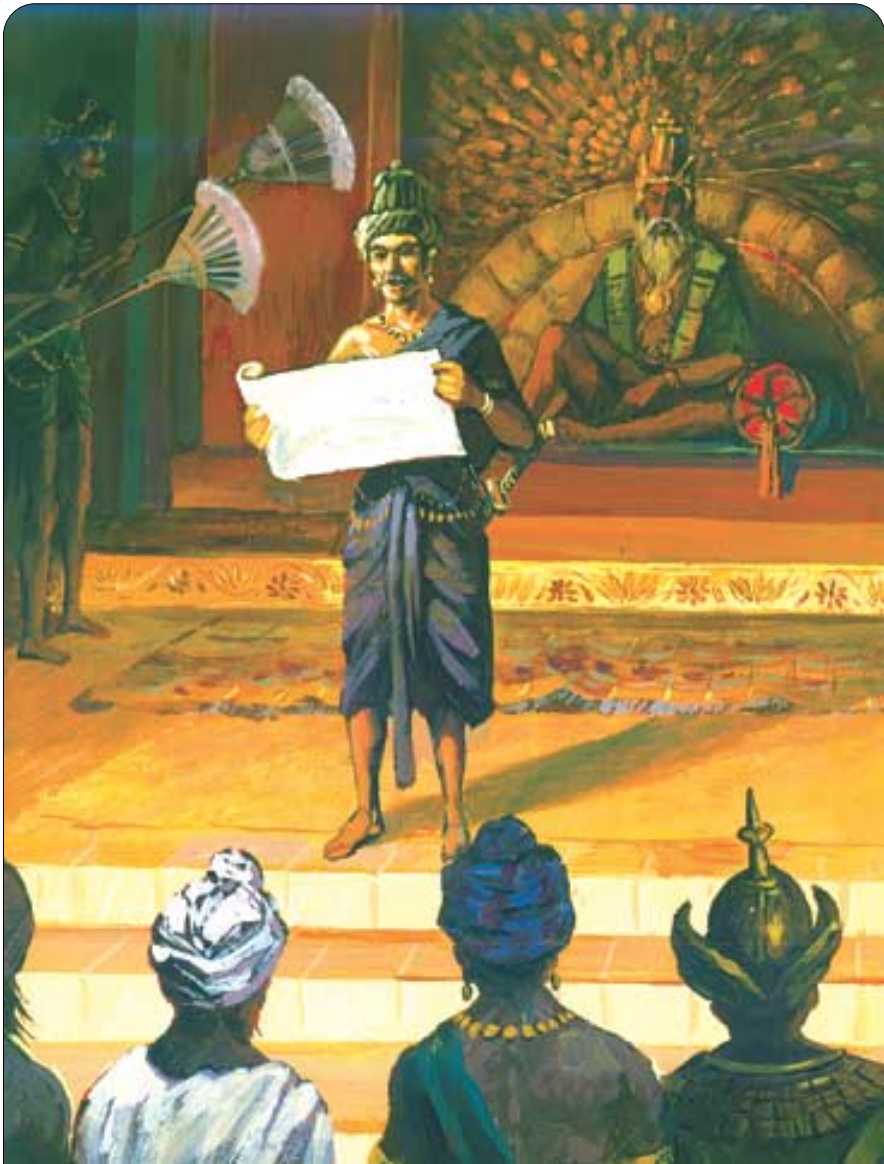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0화 사카족의 출가



카 필라바스투의 슛도다나 왕은 사카족의 가문에서 붓다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사카족 청년들이 부처님 교단에 출가할 것을 권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포고 : 사카족은 한 가정에서 한사람 이상씩 출가시킬 것, 형제가 다섯 있는 집은 세 사람을, 네 사람 있는 집은 두 사람을, 두 사람 있는 집은 한사람을 출가시킬 것이며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는 출가시키지 말 것.

이 때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붓다의 교단에 귀의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간단히 예를 들어봐도 늙은 슛도다나 왕의 은퇴 후 왕위를 맡았던 바드리카(Bhadrika)왕과 아니루다(Anuruddha), 그리고 나중에 붓다와 맞서서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악명의 대명사 데바닷타(Devadatta) 등 글자 그대로 카필라바스투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사카족의 풍습으로는 출가하는 사람들이 성밖 멀리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강을 건너며, 자신들이 소유했던 장신구들을 하인에게 주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여생을 살아가길 바랐다. 바드리카를 비롯해 이번 출가에서 동행한 일곱 귀족들도 그동안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이발사 우팔리(Uppali)를 데리고 강을 건넜고 풍습에 따라 그들의 금은 장신구를 벗어 우팔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팔리의 얼굴에는 즐거움 표정 대신 고뇌의 모습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도다나 대왕이 늙고 병이 들어 왕위를 은퇴하시고 그 절대 권력을 바드리카 님에게 넘겨주셔서 실제로 바드리카는 이 나라의 왕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저분은 왕위를 버리고 붓다에게로 출가하신다. 또 붓다의 정비(正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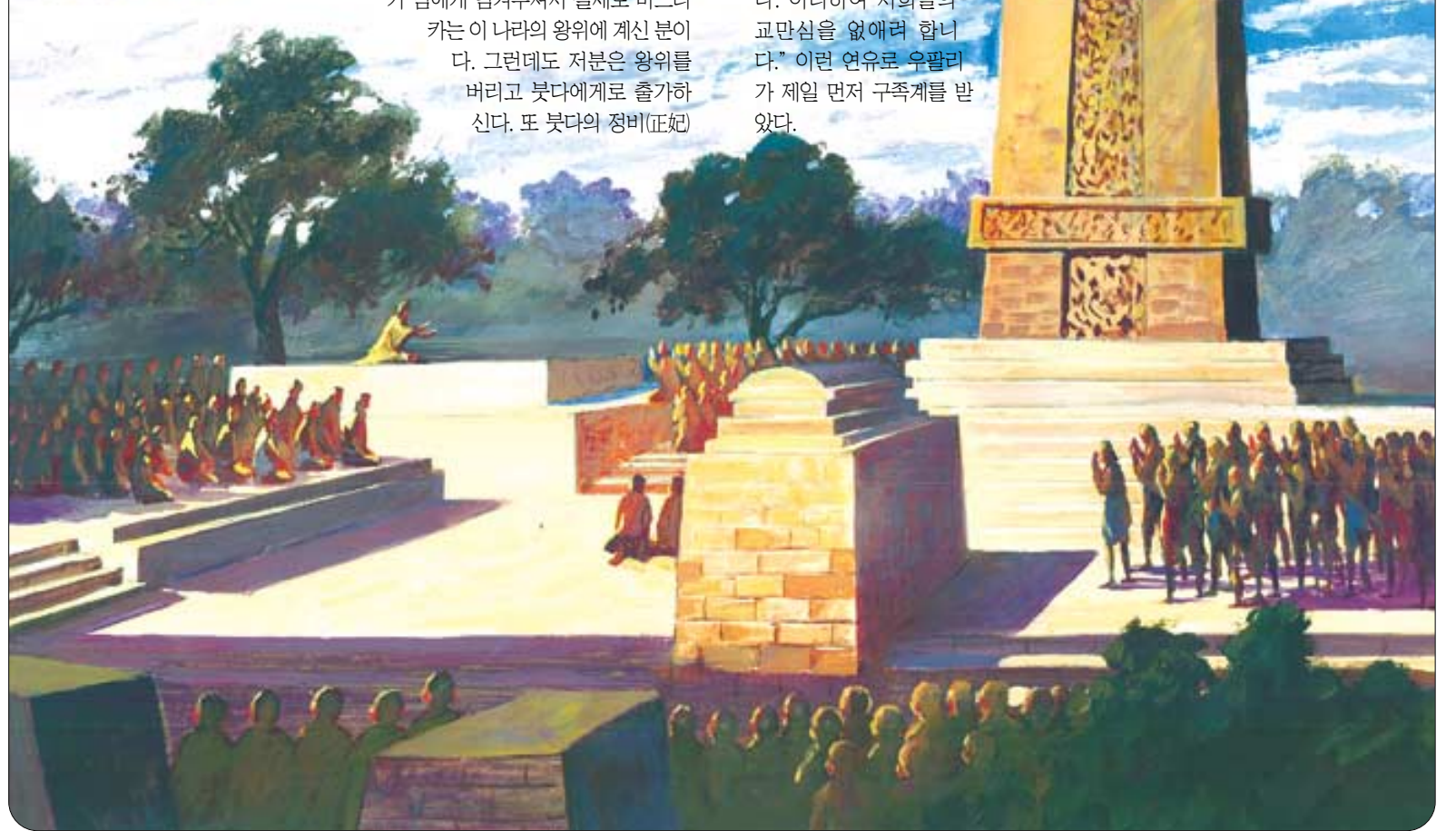
였던 아소다라 왕후의 동생인 데바닷타님도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붓다께 가신다. 저처럼 지체가 높으신 귀족 양반들이 모두 붓다를 찾아가는데 나 같은 이 무식한 이발사가 무엇 때문에 성으로 돌아가서, 또 엄격한 신분의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이 기회에 나도 부처님께 출가함이 옳지 않을까?”

이리하여 이발사 우팔리는 귀족들이 넘겨준 금·은·보화를 나무 위에 걸여 놓고 귀족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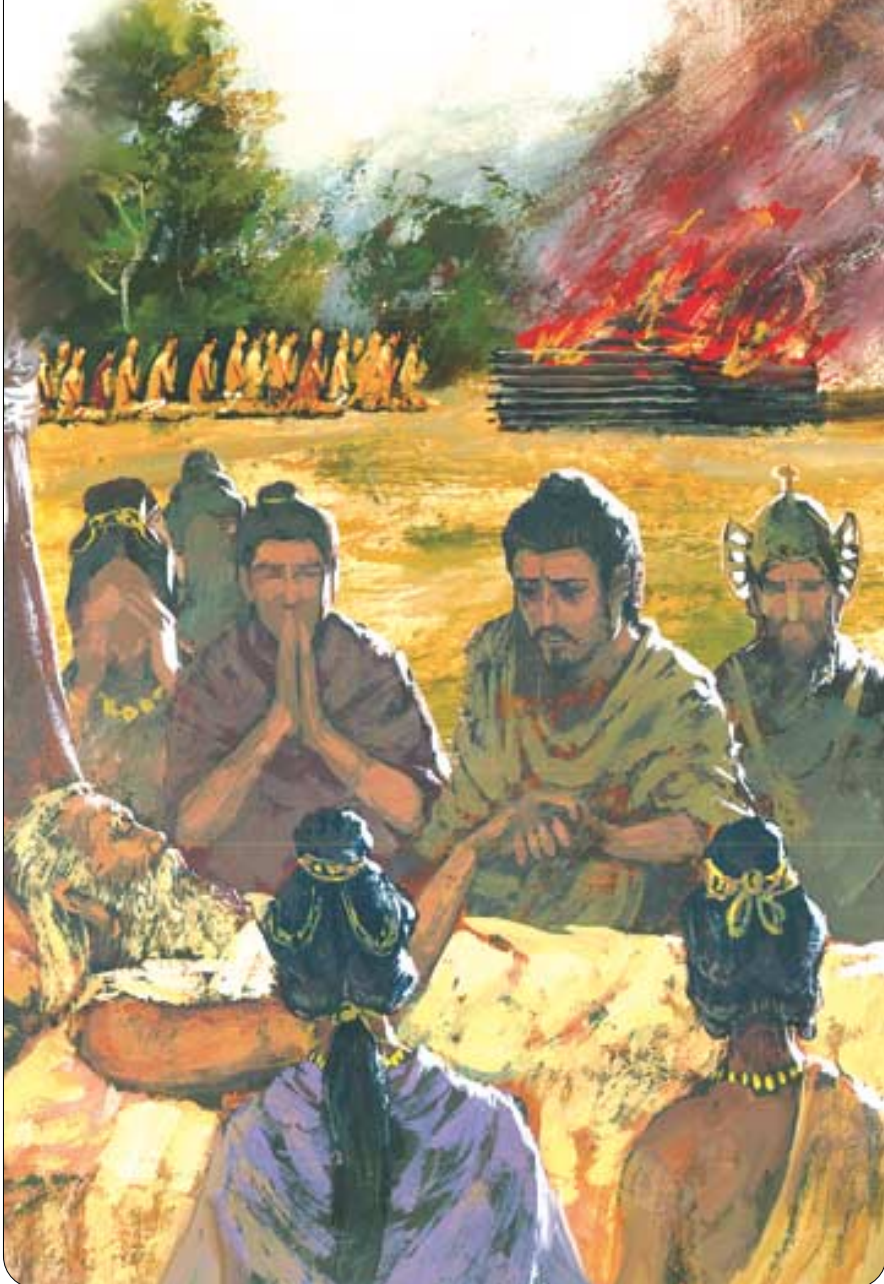
이때 부처님은 말타족의 나라 이누피야라는 곳에서 여덟명의 사카족 청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붓다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여쭙었다.

“저희들 사카족은 본시 교만한 생각이 많으므로 이발사 우팔리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팔리가 먼저 귀족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그를 선배로서 존경하고 예를 갖추어 대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희들의 교만심을 없애려 합니다.”

이런 연유로 우팔리가 제일 먼저 귀족계를 받았다.



붓 다가 라즈기르의 그리드라쿠타(영축산)에 머물고 있을 때, 카필라바스투의 슛도다나왕이 위독하였다. 그때는 이미 왕이 가장 사랑하던 태자 싯다르타가 출가와 동시에 떠났고, 둘째 아들 난다(Nanda)마저 승단으로 들어가니 할 수 없이 왕권을 친족인 바드리카(Bhadrika)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왕마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버렸고, 생질인 아난다(Ananda)마저 붓다의 결의로 가버렸던 것이다.



이 제 인종을 맞이하는 슛도다나 왕은 그례 전함에 의지가 약해지면서, 마지막 소원으로 붓다의 손으로 제도(濟度)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최후의 순간에 도착한 붓다는 부왕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이때 늙은 왕은 붓다의 손을 끌어 가

슴에 대고 반듯이 누운 채로 할 장하여 만족하다는 뜻을 보이더니 이윽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고 인의 몸은 향수로 씻어졌고 칠보와 진주로 장식된 관에 넣어진 후 꽃을 뿌리고 향을 피웠다. 붓다와 난다는 머리맡에 서고 리홀라는 발아래 섰다. 그리고 뒷세상에 인심이 어지러워져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불효자식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모범을 보이려고 몸소 관을 메었다. 그리하여 우두, 전단 등의 향나무를 모아 화장하였다. 그리고 유골은 황금으로 된 그릇에 담고 탑을 세워 모셨다.

스도다나왕(Subhadana, 淨飯王)이 승하하자 카필라바스투의 대통 문제는 여러번 혼미를 거듭했다. 우선 왕위를 비워둘 수 없는 문제여서 슛도다

나왕의 넷째 아우인 아미타다나(甘露飯王, Amrta-dana)가 잠시 보위를 지켰으나, 그 역시 연로한 탓에 할 수 없이 5인의 대신회를 열어 그중 최고의 대신을 새로운 왕으로 뽑으니, 그가 바로 마하나마(Mahanama, 摩訶男)라자(rajā, 王)이다.